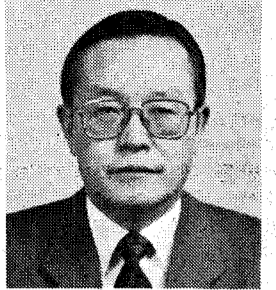


# 노인의 신경계 질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배우들이 노인 역할을 할 때 완곡하고 쉽게 잊어 버리거나 허리가 굽은 채로 휘청거리면서 천천히 걷고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노인의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가 노인 하면 연상되는 모습의 대부분이 신경계의 변화로 오게 된다.

진단은 임상적으로 사회생활과 직업을 계속 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지적능력의 장애가 있고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대뇌기능 장애가 있으면서 의식장애가 없으면 치매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이 병을 완치하는 방법은 없으나 치료를 받음으로써 병의 악



김진수

(연세의대 신경과 교수)

거동하기 힘들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즈음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치료 및 간호에 더욱 어려움이 많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노화 그 자체가 뇌졸중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파킨슨씨 병

노화에 따라 대뇌가 위축되는 것에 비해 뇌간부는 비교적 보존되는 경향이 있지만 뇌간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대뇌와 마찬가지로 신경세포가 소실되는데 이중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 내는 흑질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기는 병을 파킨슨씨 병이라고 한다. 이 병은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가 알리게 되어 매스컴에 많이 등장했던 병으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허리가 굽고 종종 걸음으로 걸으며 동작이 느려지고 손을 떨면서 표정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목소리의 높낮이가 없어지는 등의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병의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하면 쉽게 연상하게 되는 허리가 굽고 동작이 느리고 하는 등의 모습과 유사하여 이러한 환자들을 단순히 늙기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나 일종의 중풍(뇌졸중)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병은 대부분 여러가지 약제에 반응이 좋다. 특히 노인성 파킨슨씨 병 환자에서는 병의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남은 수명 동안 거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진찰을 받도록 하여 기급적 병의 초기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억력장애는 치매의 "적신호"



우리가 노인하면 연상되는 모습의 대부분이 신경계의 변화로 온다.

## 초기치료를 시 병의惡化 막아

나이가 들어 정상적인 노화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말겠지만 이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은 병에 걸리게 된다. 어떤 병들은 특히 노인이 되면서 잘 걸리게 되는데 신경계의 병으로 대표적인 것들로는 우리에게 노망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 뇌졸중 및 파킨슨씨 병등을 들 수 있다.

### 치매

치매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감퇴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지적능력의 감소가 개인의 사회생활이나 직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때 이를 병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치매라고 부르게 된다.

치매는 아주 미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어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초기에는 알아차리기가 힘들 때가 많다. 처음에는 매일 하면 일을 빼먹는 다던가, 일에 관심이 없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환자가 평소 즐겼던 일도 잘하려들지 않는

등 평소와 큰 차이가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환자가 단순히 피로하거나 일에 지겨워져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기억력 장애는 치매의 매우 중요한 증상인데 초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병이 점차 진행되면서 얼마 전에 바로 한 일이나 이야기도 기억을 못하고, 일을 시켜도 바로 잊어버리는 등 주위사람도 확실히 이상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력 장애가 치매의 중요한 증상이기는 하지만 우울증에 빠진다면 갑자기 울고 화를 내며 공격적이 되는 등 감정의 변화도 올 수 있으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유도 없이 남을 의심하며, 소대변을 가리

지 못하고, 때로는 헛 것이 보인다고 하는 등의 환시나 환청 상태를 보여 주위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알츠하이머씨 병, 다발성 뇌경색증, 만성 알콜중독, 뇌종양, 뇌수종, 만성약물중독, 영양결핍, 신경매독등의 감염증, 그리고 호르몬이나 대사이상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중 노화와 연관되어 오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츠하이머씨병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이 병이 전체 치매의 약 5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뇌졸중이 많아 이로 인한 치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를 지연시킨다면가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 뇌졸중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의 하나로 노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경계 질환이다. 뇌졸중은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 더욱 잘 발생하며 뇌로 가는 혈류량도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발병율의 증가는 75세를 넘으면 급격히 증가하며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진다.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휴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혼자

###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해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율이 증가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당뇨병! 왜! 후루다렌을 복용하는가?

###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렌의 약효입증!

후루다렌®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렌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 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 80% 이상이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렌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경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장구현 외 협회 이사 시행을 하여 안내주시면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1 삼일제약 본사  
이메일: info@samilpharm.com